

“‘일류 순천’ 재도약...품격있는 도시 만들겠다”

노관규

순천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선8기 비전과 목표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정하고 순천시를 미래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년 만에 시장으로 복귀한 노 시장은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9개 분야, 42개 세부 공약을 수립하고 탄탄하고 속도감 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

노관규 시장은 취임사에서 민선4기 재임 시절 순천의 미래비전으로 선언한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불꽃을 되살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고 ‘일류 순천’으로 재도약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류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으로 ‘일류 순천’은 순천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를 말한다. 순천을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일등인 도시가 아닌 고유하고 독보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통 큰 포부다.

노 시장은 정치적 반복, 세대, 젠더, 지역 간 갈등으로 흩어진 순천을 하나로 만들고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 실용, 소통행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해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을 품격있는 시민과 함께 창조도시,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노관규 시장은 ‘일류 순천’으로의 재도약의 첫 걸음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꾀었다. 생태수도를 선포했던 철학과 2013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유치·조성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첫 번째 조치가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이다. 속도감 있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어 노 시장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기존의 국가정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 된다. 지금까지의 계획을 과감하게 비우고 있어야 할 것과 없어 할 것을 정리해 정원의 특색을 더 부각시킬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분화구정원, 미래정원, 식물원 등 길러 콘텐츠들은 변화된 시대와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새로운 콘텐츠로 보강한다.

2013년과 달리 박람회장이 국가정원 구역에 남

‘신뢰받는 행정·창조 도시’ 지향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

탄소 포집장·열병합발전 시설 도입

원도심 르네상스 등 프로젝트 추진

통합 메가시티 거점도시 조성 구상



여 동천을 통해 도심으로 확장된다. 도심의 중심인 동천도 도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그린웨이로 선보일 예정이다. 동천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뱃길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장과 주변 거점은 미래형 모빌리티 운송수단을 이용해 연결할 생각이다.

2023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30개국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하며 8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효과만 1조5,000억 원에 달하며 2만5,0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탄소중립으로 살아가는 경제

노관규 시장은 친환경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 탄소배출권 획득 및 거래, 수소차 보급·수소연료 발전소 등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민선7기 지역민의 갈등을 촉발했던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문제를 탄소중립으로 해결 하겠다는 것이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매립부지의 한계와 지속적인 매립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현재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시장은 쓰레기를 태워 없애고 매립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수거에서 분류, 처리까지 친환경적인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폐기물도 돈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세대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탄소 포집장과 열병합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AI 시스템 활용 자원회수 리버스 밴딩 시스템을 도입해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화수·선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동부권 광역화를 추진한다.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지역으로 산단을 생각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쓰레기 문제는 순천·여수·광양 세 도시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단체장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다음으로 장소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마련

시민들의 풍요로운 정주 여건을 위해 물과 숲,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심 공중선 지중화 단계적 추진 ▲물이 흐르는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 ▲연향뜰 물의 도시 조성 ▲경전선 전철화 사업 합리적 대안 마련 ▲도심 빈 건물 활성화 ▲차질 없는 신청사 준공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청년주택 공급 ▲도심 하천 정비로 재난 대비 등을 실현 방안으로 내세웠다.

먼저 도시의 경제축이 신도심으로 옮겨가 침체되었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된 중앙시장은 육전과 연결해 노천카페거리로 만들고 원도심 상행리제 거리는 문화의 거리, 육전, 남문터 광장과 연결해 새로운 상권과 문화 예술 공연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현재 신속 중인 신청사를 단순한 공무원들의 근무 공간이 아닌 시민 중심의 공공청사로 건립하고 신청사 일원에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심의 무분별한 주택 건립과 개발을 지양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공동주택 난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한 민심을 해소하고 인수위원회가 첫 번째 정책권고로 내세운 공동주택의 공급량 적정성 검토와 허가 강화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요건으로 인구 여건, 빈집 상황, 도로·교통 여건, 경관 자원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동주택 건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 메가시티 거점도시로

노관규 시장은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통합 메가시티를 강조했다. 지방 소멸을 넘어 기회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인근 도시와 협력하고 서로 기능을 특화 시켜 순천을 통합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 수단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스타필드 유치를 내세웠다. 노 시장은 “단순히 신도심 활성화 문제나 전남 동부권의 활성화 문제만으로 스타필드 유치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예전에는 행정과 정치가 지역 통합을 이뤄냈다면, 지금은 기업이 지역을 통합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을 넘어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100만 소비권을 유치해 순천을 남해안남중권의 중심도시, 통합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도시가 모두 젊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 과열되고 있는 의대 유치 등 공동 현안을 통합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경륜과 지혜로 화합과 통합을 통해 순천을 시민 스스로 높은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일류 도시로 만들어 반드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주요 공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탄소중립으로 살아가는 경제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차질 없는 신청사 준공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 유치 ▲농촌(스마트팜)으로 출퇴근하는 역대 연봉 청년 육성 ▲시립 반려동물 병원 건립 ▲응급 의료 환경 개선 추진 ▲순천형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운영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 ▲एको 예술인센터 구축 ▲순천 예술의 전당(एको 아트센터)추진 ▲스포츠 파크 조성 ▲서면·가곡 중학교 설립 ▲캠핑장 조성 활성화 ▲정원 후방산업 육성 ▲청렴도 향상

노관규가 걸어온 길

▲국세청 근무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대검찰청정당수사부 검사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보 ▲새천년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 ▲제5·6대 순천시장

(왼쪽부터)

▶노관규 시장이 2023정원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이 최근 읍면동장 회의에서 ‘현장, 실용, 소통행정’을 당부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이 걸어서 출근하며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